

# 매일 이자가 착착... 큰 혜택에 '증권사 체크카드' 인기

KB·교보·SK증권 등 13곳 출시

**KB증권** 투자잔액 최대 2.5% 수익  
**교보증권** 전 학원업종 10% 할인  
**한국투자증권** 사용액 0.3% 캐시백  
**유안타증권** ATM·CD 입출금 무료



KB증권 (윗줄)과 유안타증권 체크카드 라인업. /각사 홈페이지

증권업계가 잇따라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증권사 체크카드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되기 때문에 돈만 넣어둬도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문 카드사 못지 않은 혜택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등록한 증권사는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출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9개사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체 체크카드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의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가 허용된 것은 지난 2013년 7월부터다. 신용카드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세액 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체크카드 출시에 나선 증

권사는 KB증권이다. 현재 통신티, 포인트 등 혜택별로 4개의 카드 라인업을 갖췄다.

이중 'KB증권 에이블(able) 아이맥스' 카드는 KB증권 계좌로 투자를 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돼 있다. CMA형 선택 시 당월 카드 사용실적의 3배까지 CMA 기본 수익률(최대 2.5%)이 추가 제공된다.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300만원 예치금액까지 기본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금융상품형 선택 시 금융상

품 가입금액 만큼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추가 수익률을 제공한다.

교보증권의 자체 체크카드인 '윈케이'(Win. K)는 교육에 특화돼 있다. 국내 전 학원업종 결제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 서점, 어학시험 응시 시에도 10% 할인(월 5000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허가받고 체크카드를 내놨다. '더모아 체크카드'는 전월 사용실적과 상관없이 국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한 금액의 0.3%를 최대 월 1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마트와 커피전문점 이용액의 경우에는 5~7% 캐시백이 월 1만원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유안타증권은 4개 자체 체크카드 모

두 편의점 현금지급기(ATM), CD 입출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넣었다. 또 '유안타 Stock+ 체크카드'는 주식 약정별로 카드사용금액의 최대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증권사들이 자체 체크카드 발급에 나서서 이유는 '고객확보'를 위해서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해당 증권사의 CMA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유인 효과가 있다. 자연스럽게 투자 상품과 연결도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로 금융투자를 할 경우 고객들은 증권사 자체 체크카드 사용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기존 고객들에게도 더 혜택을 주고자 체크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난 4일 열린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왼쪽에서 열두번째)와 우수 협력회사 대표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림산업

## 대림산업 '한숲 파트너스데이' 행사 개최 장기적 상생으로 협력사 체질강화

대림산업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협력회사의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행사에는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200여개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대림은 협력회사 가운데 한해 동안 가장 협력관계가 뛰어난 19개 회사를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선정했다. 이 회사들에게는 향후 1년간 신규 계약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요율을 50%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되고 추가적인 보증 여력이 확보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몰을 건설사 최초로 도입했다. 동반성장몰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다. 대림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협력회사에 동반성장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초청해 '불굴의 도전정신'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도 이어졌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대림산업과 협력회사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영·용·강·은 '서울 신흥주거타운' 부상

<영등포·용산·강북·은평구>

영등포 '신길뉴타운' 교통 편리  
대형사 6곳 6993가구 공급 마쳐  
3구역 포스코 더샵 316가구 분양

서울 영등포·용산·강북·은평구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촌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타운 개발로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하는가 하면, 재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영등포(신길뉴타운), 용산(효창동 일대), 강북(미아동), 은평(녹번동)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촌 조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여의도, 광화문, 강남권 등 주요 도심과 20~30분대 거리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외의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할 아파트가 밀집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영등포 신길뉴타운이다. 일대는 신평역·보라매역(7호선) 이용이 편리하며, 신길역(12호선), 영등포역(1호선) 등이 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IFC몰 등의 대형 유통시설도 가깝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6곳에서 6993가구가 분양을 마

<서울 新 아파트촌 내 신규 분양>

지역	단지명	총가구수	시공사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	포스코건설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384	태영건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한신더휴	203	한신공영

쳤으며, 향후 1만여 가구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 효창공원 일대다. 업무시설이 몰린 공덕~서울역~용산 사이에 위치한 효창공원앞역(6호선, 경의중앙선)도 도보권이다. 최근 효창공원 일대 20만㎡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역사문화 특화형)'으로 선정됐다. '효창파크 KCC스웨첸', '용산 롯데캐슬 센트포레' 등이 최근 입주를 마쳤다.

강북 미아동 일대도 신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길음~미아~장위로 연결되는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이 한창이다. 미아사거리역(4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약 2만여 가구의 길음 뉴타운, 동쪽 꿈의숲 인근에도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은평구 녹번동 일대도 녹번역(3호선)을 끼고 응암 1·2구역, 녹번 1구역 등에서 재개발로 1만여 가구의 아파트촌이 조성 중이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 아파트분양으로는 신길뉴타운에선 3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이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가구 중 59~114㎡ 316가구를 일반 공급한다. 전 세대 남향위주로 일부 세대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되며, 4베이 특화평면도 선보인다. 84㎡ 이상의 세대는 거실과 주방에 아트월을 적용한 다이닝 특화를, 일부 타입의 세대에는 현관 창고장, 울인원 드레스룸(옵션) 등이 제공된다.

미아동에서는 한신공영이 '꿈의숲 한신더휴' 55~84㎡, 117가구에 대한 계약을 16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북서울 꿈의숲(약 66만㎡)이 자리한다.

효창동에서는 태영건설이 '효창파크뷰 데시앙' 384가구 중 45~84㎡ 78가구에 대한 당첨자 계약을 16~18일 진행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 한투증, 베트남 법인 파인트리증권 출범

"베트남 금융발전 위해 노력할 것"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일 베트남 법인 'Pinetree(파인트리) 증권'을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파인트리증권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베트남 증권위원회, 호치민거래소, 하노이거래소 등 정부 유관 기관과 베트남 소재 금융회사 등 약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한

화투자증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인트리증권이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시장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자본을 아낌없이 지원해 파인트리증권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4월 HFT증권 인수 후 2025년 넘버원 동남아 디지털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파인트리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손영지 기자

## KB證-中 중태證 M&A거래·자금조달 업무협약

KB증권은 지난 3일 중국의 중태증권과 한·중 기업 간 인수합병(M&A) 및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 산둥성이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산둥성 개방 강화 교류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태증권은 중국내 국내총생산(GDP) 3위의 산둥성이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정부소유 증권사다. 올 상반기 기준 총자산 25조2000억원, 자기자본 5조7000억원, 관리자산(AUM) 약 180조원에 달한다.

KB증권은 지난해부터 중국 SISAN 그룹의 한국 신성FA M&A(1억 달러) 자문, 중국기업의 김치본드·아리랑본드 발행을 주관해왔으며, 최근 중국 최대 항공사인 동방항공의 아리랑본드 발행을 대표주관하는 등 부채자본시장(DCM) 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산둥성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도가 높고 우량한 국유기업들에 대해 포괄적인 투자은행(IB)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B증권의 IB 역량을 글로벌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왼쪽)와 중태증권 리웨이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업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지 기자